

# 漢字의 造字法 「六書」 研究\*

孫 叡 徹\*\*

## 一. 序 言

中國 東漢 末期의 大學者인 許慎(A.D. ? 55~? 125)이 中國文字學史上 최초로 漢字의 造字方法을 指事·象形·形聲·會意·轉注·假借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해설한 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漢字의 造字方法으로서의 「六書」의 定義가 애매하여 이들 상호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六書」에 대한 해설이 紛紛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漢字가 최초로 만들어질 때 어떤 造字原則이 먼저 확립된 상태에서 이 원칙에 의거하여 漢字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漢字의 구조를 분석·정리하여 歸納的인 방법으로 造字法則을 推出해 내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렇게 歸納的인 방법으로 漢字의 造字方法을 類推해 내는 방법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어떤 한 개인의 힘으로 그 사람의 當代에 쓰이고 있는 모든 漢字 즉 正體字를 포함하여 俗體字·或體字와 그리고 그 以前의 모든 종류의 古字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이를 다시 분석정리하는 이러한 작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中國文字學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六書」 연구에서는 許慎의 說을 거의 金科玉條로 信奉하였다는 점이다. 許慎의 說은 그가 中國文字學史上 최초로 漢字의 造字方法을 체계적으

\* 이 논문은 1985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漢陽大學校 人文大學 助教授

로論하였고, 또 그의 해설중에는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卓見도 있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해설이 아주 애매모호하여 상호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漢字의 造字方法으로서의 「六書」에 대한 정확한 定義를 내리기가 아무리 어렵고 또 이로 因하여 學者들간의 說이 아무리 各樣各色으로 異見이 紛紛하다고 하더라도, 이 「六書」에 대한 연구는 中國文字學 연구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이다. 이에 本論文에서는 漢字의 造字法 「六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함에 있어, 우선 「六書」說의 유래를 알아본 다음, 從來의 「六書」해설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六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 二. 「六書」說의 由來

### 1. 《周禮》中の 「六書」의 의미

현재까지 남아있는 文獻記錄으로는 「六書」라는 말이 최초로 나타난 곳은 《周禮·地官》에서인데, 이를 보면,

保氏掌諫王惡，而養國子以道，乃教之六藝：一曰五禮，二曰六樂，三曰五射，四曰五馭，五曰六書，六曰九數。<sup>1)</sup>

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保氏가 學童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六藝’의 하나로서 「六書」를 가르쳤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六書」란 어떤 의미인가? 이에 대해 班固(A.D.32~92)는,

古者八歲入小學，故《周官》保氏掌養國子，教之六書，謂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造字之本也。<sup>2)</sup>

1) 十三經注疏本 第三冊 《周禮》卷十四〈地官〉藝文印書館(臺北, 1974) p. 212.

2) 班固著 顏師古注 《漢書·藝文志》鼎文書局(臺北, 1977) p. 1720.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지금의 교육제도로는 국민학교에 해당되는 小學에 입학한 學童들에게 漢字의 造字方法으로서의 「六書」를 가르쳤는데, 이 「六書」란 곧 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를 말한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周官》이란 바로 《周禮》의 異稱이다.

또 鄭衆(?~A.D. 83)은 그의 《周禮解詁》에서 이 「六書」에 대해,

六書, 象形·會意·轉注·處事·假借·諧聲也.<sup>3)</sup>

라고 하여, 班固와 마찬가지로 이 「六書」를 여섯 가지의 造字方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許慎은 《說文解字·敘》에서,

《周禮》, 八歲入小學, 保氏教國子先以六書: 一曰指事, …… 二曰象形, …… 三曰形聲, …… 四曰會意, …… 五曰轉注, …… 六曰假借, ……<sup>4)</sup>

라고 하고는 또,

時有六書: 一曰古文, 孔子壁中書也; 二曰奇字, 即古文而異者也; 三曰篆書, 即小篆, 秦始皇帝使下柱人程邈所作也; 四曰左書, 即秦隸書; 五曰繆篆, 所以摹印也; 六曰鳥蟲書, 所以書幡信也.<sup>5)</sup>

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許慎은 《周禮》中の 「六書」를 班固나 鄭衆과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의 造字方法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의 인용문에서의 '時'란 西漢末 王莽(B.C.45~A.D.23)이 攝政할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許慎은 꼭 같은 「六書」라는 말을 여섯 가지 종류의 漢字의 字體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周禮·地官》中の 이 「六書」의 의미는 班固·鄭衆 그리고 許慎의 해석과 같이 漢字의 여섯 가지의 造字方法인가? 결론부터

3) 前掲書《周禮》p. 213에 鄭玄의 注에 鄭司農 즉 鄭衆의 이 말을 인용하고 있음.

4) 許慎著 段玉裁注《說文解字注》藝文印書館(臺北, 1979) pp. 762-764.

5) 上掲書 pp. 768-769.

먼저 말한다면 《周禮·地官》中の「六書」는 漢字의 여섯 가지 造字方法이 아니라 여섯 가지 종류의 漢字의 字體이다. 왜냐하면 첫째 《周禮·地官》中の「六書」는 분명히 ‘六藝’ 즉 禮·樂·射·御(즉 馭)·書·數에서 ‘書’이며, 이 ‘書’란 ‘書契’·‘書體’·‘篆書’·‘鳥蟲書’ 등과 같이 ‘文字’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許愼도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六書」를 여섯 가지 종류의 書體 즉 字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의 교육제도와 비교하면 국민학교에 상당하는 小學에 입학한 學童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는 文字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지,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文字의 造字方法 여섯 가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실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周禮·地官》中の「六書」의 의미는 여섯 가지 종류의 字體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周禮·地官》中の「六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여섯가지의 字體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資料로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추출해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 2. 漢字의 造字方法 「六書」의 由來

中國文字學史에서 漢字의 造字方法으로서의 「六書」의 구체적인 명칭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文獻記錄上으로는 班固의 《漢書·藝文志》에서 최초로 提示되었으며; 이 「六書」의 구체적 명칭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은 許愼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티록 許愼 보다 앞서 鄭衆도 이 「六書」에 대해 구체적인 명칭을 提示했지만, 명칭이외에는 한 마디의 설명도 없음은 班固와 마찬가지로이다.<sup>6)</sup>

6) 班固·鄭衆 그리고 許愼등이 제시한 「六書」의 구체적인 명칭은 앞에서 인용한 註 2), 3), 4)에 보임.

그런데 班固는 그의 《漢書·藝文志》에서,

會向卒，哀帝復使向子侍中奉車都尉歆卒父業。歆於是總群書而奏其《七略》，故有《輯略》，有《六藝略》，有《諸子略》，有《詩賦略》，有《兵書略》，有《術數略》，有《方技略》。今刪其要，以備篇籍。<sup>7)</sup>

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의 《漢書·藝文志》는 劉歆(?~A.D.23)의 《七略》의 精選本임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漢字의 造字方法으로서의 「六書」의 구체적인 명칭은, 사실은 班固에게서가 아니라 劉歆의 《七略》에서 최초로 提示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漢·荀悅의 《漢紀》卷二十五〈孝成皇帝紀〉二에 劉歆의 《七略》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보면,

凡書有六本，謂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也。<sup>8)</sup>

라고 하고 있다. 이를 위에서 引用한 註 2)의 班固의 말과 비교하여 보면 「六書」의 명칭과 차례가 모두 꼭 같음을 알 수 있어, 班固의 「六書」에 대한 구체적 명칭은 劉歆의 《七略》에서 비롯되었음을 더욱 확실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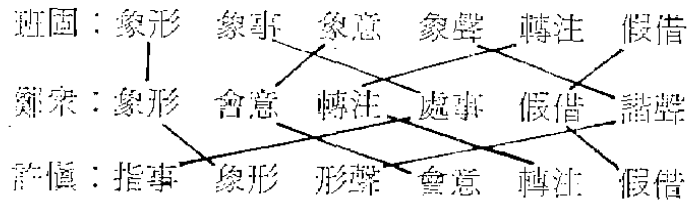
그리고 이 「六書」의 구체적인 명칭이 劉歆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漢代에 특별히 언급했던, 鄭衆과 許慎의 학문적인 師承 관계로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鄭衆은 그의 父親 鄭興의 학문을 이어 받았는데, 鄭興이 바로 劉歆에게서 배웠으며; 許慎은 賈逵(A.D.30~101)의 弟子였는데, 賈逵는 그의 父親 賈徽의 학문을 이어받았으며, 賈徽가 또한 劉歆에게서 배웠다.

이로써 漢代에 漢字의 造字法「六書」의 구체적인 명칭을 제시한 班固·鄭衆·許慎등 세 사람의 「六書」에 대한 說은 모두 劉歆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7) 前掲書《漢書》p. 1701.

8) 荀悅《漢紀》卷二十五. 商務印書館(臺北, 1974) p. 246.

그러나 비록 이들 세 사람의 「六書」에 대한 說의 연원이 다 같이 劉歆에게서 비롯되었고, 또 이들이 말한 「六書」의 구체적인 명칭이 갖는 의미가 일탄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내세운 「六書」의 구체적인 명칭과 순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도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이들이 내세운 명칭과 순서가 상당부분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後世 學者들이 사용한 명칭과 차례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례는 班固의 것을 따르고, 명칭은 許慎의 것을 따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이 「六書」에 대한 구체적 명칭은 劉歆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까지는 규명이 되었으나, 劉歆의 이 「六書」說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즉 劉歆의 이 「六書」說은 순수히 劉歆 자신의 創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傳授 또는 啓示를 받았다면 그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문제를 규명해 낼 수 있는 資料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漢字의 造字方法으로서의 「六書」說은 劉歆으로부터 由來되었다고만 하는 수 밖에 없다.

### 三. 從來의 「六書」해설의 문제점

前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漢字의 造字方法으로서의 「六書」說은 劉歆으로부터 비롯되었고, 班固와 鄭衆에 의해서도 언급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설은 許慎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許慎 이후에 中國文字學을 연구한 거의 대부분의 學者들이 이 「六書」를 論함에 있어서는 許慎의 說을 金科玉條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약 1800여년 동안의 이 「六書」에 대한 연구는 許慎의 「六書」해설에 대한 자기 나름의 再解釋이 그 主宗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本章에서 종래의 「六書」해설의 문제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許慎의 「六書」해설을 위주로 하고, 다른 학자들의 주장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 부분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겠다.

許慎의 「六書」에 대한 해설은 그의 《說文解字·敘》에 기록되어 있는데, 每 造字方法에 대해 한 귀절이 네 글자 즉 四言一句의 두 귀절의 韻文으로 설명되어 있고, 그 例로 두 글자를 들고 있다. 이를 象形·指事·會意·形聲·轉注·假借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象 形

許慎은 《說文解字·敘》에서,

象形者，畫成其物，隨體詰詘，日月是也。<sup>9)</sup>

라고 象形字를 설명하였다. 여기서의 ‘畫成其物’이란 ‘어떤 물체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뜻이며, ‘隨體詰詘’이란 ‘물체의 모양에 따라 筆劃을 굴절시킨다’는 뜻이므로, 이 두 귀절을 합치면 象形字란 字形이 어떤 물체의 外貌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서 만들어진 文字를 말한다는 것이다. 例로 든 「日」字와 「月」字는 甲骨文이나 金文으로는 「☉」과 「☾」의 모양으로 쓰는데<sup>10)</sup>, 이는 각각 해와 달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許慎의 象形字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는 종래의 學者들에게서 아

9) 前掲書《說文解字注》p. 762.

10) ‘日’字는 羅振玉編《殷虛書契前編》卷八 p. 7의 제 2片과 p. 9의 제 4片등에 보이며, ‘月’字는 同書 卷一 p. 42의 제 1片과 卷二 p. 3의 제 5片에 보임.

무런 異見이 제기되지 않았으며 현재에도 그대로 公認되고 있다.

## 2. 指 事

許慎은,

指事者，視而可識，察而見意，上下是也。<sup>11)</sup>

라고 指事字를 설명하였다. 우선 먼저 여기서 例로 든 ‘上·下’ 두 글자를 살펴보면, 小篆으로는 각각 ‘二·一’로 쓰는데, 이는 길고 짧은 두 횡선을 사용하여 긴 선을 표준으로 삼고 짧은 선을 그 위 아래에 놓아서 위 또는 아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甲骨文에 이 ‘上·下’ 두 글자를 각각 ‘ㄩ·ㄷ’로 쓴 것이 있는데<sup>12)</sup>, 이는 더욱 분명하게 어떤 사물이 위에 담겨 있고 아래에 감춰져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추어 許慎의 해설을 보면, ‘視而可識’이란 보기만 하면 그 글자를 안다는 뜻이며, ‘察而見意’란 자세히 관찰하기만 하면 그 글자가 나타내고자 한 뜻을 알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이 ‘上·下’ 두 글자는 字形을 보기만 하면 곧 무슨 뜻의 글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視而可識’과 ‘察而見意’의 두 귀절의 뜻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글자를 보기만 하면 안다는 것은 결국 그 글자의 뜻도 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두 귀절로 되어 있는 것은 단지 다른 造字方法에 대한 定義가 모두 두 귀절로 되어 있어 이에 맞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許慎의 指事에 대한 定義가 매우 애매하여 象形과 會意와의 구별이 어렵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이 定義를 象形字와 會意字에 적용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한 점이 없기 때문이다. 象形字와 會意字도 보기만 하면 그 글자의 字形의 구조를 알 수 있고, 또 자세히 관찰하면 그 뜻을 알아 볼 수 있다. 설사 둘째 귀절의

11) 前掲書《說文解字注》p.762.

12) ‘上’字는 前掲書《殷虛書契前編》卷七 p.32의 제4片에 보이며, ‘下’字는 同書 卷四 p.6의 제8片에 보임.



‘見意’에 주안점을 두어서 象形이 字形에 주안점을 둔 것과는 억지로 구별을 한다 하더라도 會意와의 구별은 여전히 애매한 상태로 남는다. 이를 알아 보기 위하여 여기서 먼저 會意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 3. 會 意

會意에 대하여 許慎은,

會意者，比類合誼，以見指搆，武信是也。<sup>13)</sup>

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比’字는 동사로서 ‘연결하다. 결합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類’字는 ‘서로 관련이 되는 사물——여기서는 文字와 관계되는 것’이라는 뜻이며, ‘誼’字는 ‘義’字와 같은 의미로 ‘뜻·의미’ 등의 뜻이며, ‘指搆’란 ‘指麾’와 같은 말로서 ‘지휘하다, 가리키다’ 등의 뜻이므로 許慎의 이 말은 서로 상관되는 문자나 점·선 등을 결합시켜 그 각각의 문자와는 의미가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會意라는 造字方法이라는 것이다. 例로 든 ‘武’字와 ‘信’字를 보면; ‘武’字는 ‘정지시키다, 저지하다’ 등의 뜻인 ‘止’字와 古代의 무기를 대표하는 ‘창’이라는 뜻의 ‘戈’字를 합쳐서 ‘전쟁을 억제하다’는 뜻의 글자로 만들어졌고, ‘信’字는 사람의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人’字와 ‘言’字를 합쳐서 만든 글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會意에 대한 許慎의 定義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指事와의 구분이 문제이다. 許慎의 指事に 대한 定義로는 會意와의 구별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된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어떤 글자의 구조가 獨體인가 合體인가로써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段玉裁는,



合兩文爲會意，獨體爲指事。<sup>14)</sup>

13) 前掲書《說文解字注》p. 763.

14) 上掲書 p. 762의 段玉裁의 注.

라고 하였다. 이는 두 개의 獨體字가 합쳐진 것은 會意이며, 獨體字는 指事라는 말이다. 그러나 ‘夫·立·亦·刃’字들은 완전한 獨體字도 아니며 또한 완전한 合體字도 아니다. 이에 王筠은 이를 보충하여,

有形者物也, 無形者事也. 物有形, 故可象. 事無形, 則聖人創意以指之而已. 夫既創意, 不幾近於會意乎? 然會意者, 會合數字以成一字之意也. 指事或兩體或三體, 皆不成字; 即其中有成字者, 而仍有不成字者介乎其間以爲之主, 斯爲指事也.<sup>15)</sup>

라고 하였다. 이는 단독으로 글자를 이루는 글자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는 會意字이며, 獨體字로 되었거나 또는 獨體字에 몇 개의 글자를 이루지 못하는 성분이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글자는 指事字라는 말이다. 그러나 ‘開’字의 古文  字와 ‘葬’字의 小篆  字를 본다면<sup>16)</sup>, ‘開’字 古文的 중간에 있는 하나의 획선은 門의 빗장이며, 小篆 ‘葬’字의 가운데의 획선은 시체아래에 까는 깔개인데, 이 두 글자의 가운데에 있는 이 획선(글자가 안됨)을 없애버리더라도 온전한 글자가 된다. 王筠의 주장대로라면, 이 두 글자는 가운데의 획선을 빼면 會意字가 되고, 획선을 덧붙이면 指事字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한 글자의 造字方法이 두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獨體이나 合體이나로써 漢字의 造字方法을 구분한다면 그 적용이 指事와 會意에 국한해서만 가능한 일이지 다른 造字方法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指事만이 아니라 象形과 假借에도 獨體字가 있으며, 會意만이 아니라 形聲과 轉注·假借에도 合體字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形聲에 대해서 살펴보자.

#### 4. 形 聲

許慎은 形聲에 대해,

15) 王筠《文字蒙求》藝文印書館(臺北, 1974年) p. 37.

16) ‘開’字의 古文과 ‘葬’字는 각각 前掲書《說文設字注》p. 594와 p. 48에 보임.

形聲者，以事爲名，取譬相成，江河是也.<sup>17)</sup>

라고 하였다. 첫 귀절의 ‘名’字는 여기서는 ‘文字’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字’字를 쓰지 않고 ‘名’字를 쓴 것은 다음 귀절의 ‘成’字와韻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첫 귀절의 ‘爲名’이란 곧 ‘造字’란 뜻이며, 둘째 귀절의 ‘譬’字는 ‘비슷하다’는 뜻이므로, 許愼의 설명은 사들의 종류에 따라 그에 상응되는 글자를 만들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取하여 만든 글자가 形聲字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形聲字란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글자의 뜻을 나타내는 義符와 그 글자의 발음을 나타내는 聲符로 구성된 글자를 말한다. 예로 든 ‘江’字와 ‘河’字를 보면, 이 두 글자는 모두 물을 의미하므로 ‘水’字로 義符를 삼고, 이의 발음이 각각 ‘工’字와 ‘可’字와 비슷하므로 이 두 글자로 聲符를 삼아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許愼의 形聲에 대한 定義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 단지 ‘形聲’이란 名稱에 있어서, 形聲字가 義符와 聲符로 나누어진다면 許愼은 왜 이를 ‘義聲’이라고 하지 않고 ‘形聲’이라고 命名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을 뿐이다.

## 5. 轉 注

총래의 「六書」研究에서 異說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轉注이다. 우선 먼저 許愼의 해설을 보면,

轉注者，建類一首，同意相受，考老是也.<sup>18)</sup>

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첫 귀절의 ‘建類’의 ‘類’를 章炳麟은 聲類로 보고 있고<sup>19)</sup>, 唐代의 裴務齊는 形類로 보았으며<sup>20)</sup>, 清代의 段玉裁는 이

17) 上揭書 p. 763.

18) 上揭書 p. 763.

19) 章炳麟은 그의 《國故論衡·轉注假借說》에서 “何謂建類一首，類謂聲類”라고 하였음. 이는 正中書局編 《文字學纂要》(臺北, 1979年) p. 83에서 인용.

20) 裴務齊는 그의 《切韻序》에서 “考字左回，老字古轉”이라고 하였음. 이는 上揭書 《文字學纂要》 p. 78에서 인용.

를 또 義類로 보고 있다.<sup>21)</sup> 그러나 轉注를 定義한 두 귀절과 例로 든 두 글자를 서로 연관시켜 보면 ‘建類一首’란 곧 同一한 部首에 속한다는 뜻이며, ‘同意相受’란 뜻이 서로 같아 互訓이 된다는 뜻이므로, 轉注란 간단히 말해서 ‘同部互訓’이라는 말이다. 이는 清代의 代表的인 學者라고 할 수 있는 戴震과 《說文解字注》로 유명한 段玉裁의 주장이기도 하다.<sup>22)</sup> 다시 例로 든 두 글자를 보면, ‘老’字는 《說文解字》에 의하던 ‘人’·‘毛’·‘匕’ 등의 세 글자로 이루어졌는데<sup>23)</sup>, 여기서의 ‘匕’字는 ‘化’字와 同音同義字이므로 이 ‘老’字는 會意字로서, 뜻은 사람의 毛髮이 촘촘한데서 듬성해지고 黑色에서 白色으로 변화된다는 의미에서의 늙어간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考’字는 《說文解字》에 의하면 “从老省丂聲”<sup>24)</sup> 이라고 하였으므로 ‘匕(化)’字가 생략된 ‘老’字는 義符이고 ‘丂’字가 聲符인 形聲字이며, 이의 뜻도 역시 ‘늙다’이다.

이와 같은 許慎의 轉注에 대한 定義는 漢字의 造字方法이 아니라 글자 상호간의 관계를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단적으로 轉注와 假借는 漢字의 造字方法이 아니라 文字 상호간의 관계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이 轉注와 假借는 「六書」說이 최초로 대두될 때부터 여섯 가지의 造字方法으로서 象形·指事·會意·形聲등과 並列된 사실과, 다음 節에서 보는 바와 같이 假借가 분명한 造字方法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감안하던, 이 轉注도 「六書」說이 최초로 만들어질 때에는 하나의 造字方法이었을 것이므로, 許慎의 이와 같은 轉注에 대한 定義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1) 前掲書 《說文解字注》 p. 763에서 段玉裁는 “建類一首，謂分立其義之類而一其首”라고 하였음.

22) 上掲書 p. 763의 段玉裁의 注와 戴震의 《戴震集》 里仁書局 (臺北, 1980年) p. 71의 〈答江慎修先生論小學書〉를 참고.

23) 前掲書 《說文解字注》 p. 402.

24) 上同

## 6. 假借

明代의 楊慎은 그의 《六書索隱》에서,

六書：象形居其一，象事居其二，象意居其三，象聲居其四，假借者，借此四者也；轉注者，注此四者也。四象以爲經；假借·轉注以爲緯。<sup>25)</sup>

라 하여 「六書」를 四經二緯로 나누었고, 清代의 戴震은 또 〈答江慎修論小學書〉에서,

指事……，象形……，諧聲……，會意，四者，書之體止此矣；由是之於用，……曰轉注，……曰假借，所以用文字者，斯其兩大端也。<sup>26)</sup>

라고 하여 四體二用說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轉注와 假借는 漢字의 造字方法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許慎의 假借에 대한 定義를 再解釋하면서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언어와 문자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그럼 許慎의 假借에 대한 解釋을 보자. 그는,

假借者，本無其字，依聲託事，令長是也。<sup>27)</sup>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어떤 말에 대해 그 말에 완전히 상응되는 글자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 가운데서, 字義上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으나 발음이 이 말과 同一하거나 비슷한 글자를 골라 兼用시키는 방법이 假借라는 것이다. 이는 言語와 文字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文字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만 사실은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효능을 가지는 方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許慎의 假借에 대한 이러한 定義는 다른 어떤 漢字의 造字方法에 대한 것 보다도 분명하다 하겠다.

25) 林尹 《文字學概說》正中書局(臺北, 1980年) p. 56에서 인용.

26) 前揭書 《戴震集》 p. 75.

27) 前揭書 《戴震集》 p. 75.

그런데 문제는 許愼은 假借에 대한 이렇게 훌륭한 定義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假借의 例로 든 두 글자는 그 자신이 설정한 定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說文解字》에 의하면, ‘令’字의 本義는 ‘호령하다, 명령하다’는 뜻이며<sup>28)</sup>, ‘長’字의 本意는 ‘長久하다, 길다, 오래다’라는 뜻인데<sup>29)</sup>, ‘縣令’과 ‘縣長’의 ‘令’字와 ‘長’字를 許愼은 假借라고 보았다. 그러나 ‘縣令’이란 縣에서 政令을 내리고 시행하는 사람이며, ‘縣長’이란 한 縣의 우두머리로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륜도 쌓았으며 나이도 비교적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때의 ‘令’字와 ‘長’字는 그 뜻이 각각의 本義와 전혀 관계가 없는 假借義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引申義로 사용된 것이므로, 許愼의 假借에 대한 이 두 例는 그 자신의 假借에 대한 定義에 부합되지 않는다.

#### 四. 「六書」의 再解釋

앞 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종래의 漢字의 造字方法으로서의 「六書」說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近來 中國文字學을 전공하는 學者들 가운데는 漢字의 造字方法을 연구함에 있어 아예 許愼의 「六書」說을 근본적으로 否定해 버리는 사람도 많다. 이에 어떤 사람은 「三書」說을 주장하기도 하고<sup>30)</sup>, 또 어떤 사람은 「四書」說을 주장하기도 한다.<sup>31)</sup>

그러나 이러한 說들은 아직까지는 각 造字方法 상호간의 한계와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從來의 「六書」說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이의 再解釋을 시도하고자 한다.


28) 上揭書 p. 435에 “令, 發號也”라고 하였음.

29) 上揭書 p. 457에 “長, 久遠也”라고 하였음.

30) 唐蘭은 그의 《中國文字學》開明書局(臺北, 1978年) p. 75-79 第十二. 〈三書〉에서 象形·象意·形聲등 「三書」만이 造字方法이라고 주장.

31) 楊愼·戴震·章炳麟등의 주장.

## 1. 象 形

앞 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許慎의 象形에 대한 定義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므로, 단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象形이란 구체적인 實物의 모양을 寫實的인 그림으로 그려서 문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日·月·山·水’ 등과 같은 글자의 造字方法이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실물의 윤곽이나 특징적인 것을 그려서 문자를 만드는 方法이다. 그런데 象形의 대상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실물이므로 象形字는 마땅히 獨體字이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다른 글자와의 구분을 위하여 또는 더욱 분명히 나타내기 위하여 같은 글자를 중복시킨 것도 있다. 예를 들면 ‘艸·卉’字 그리고 甲骨文의 ‘ (即星)’<sup>32)</sup>字와 같은 글자이다.

## 2. 指 事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許慎의 指事에 대한 定義는 限界가 애대하여 象形과 會意와의 구별이 어렵다. 그런데 後代의 학자들 중에는 이 指事를 記號나 符號를 文字化한 造字方法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다. 즉 唐蘭은,

指事文字原來是記號，是抽象的，不是實物的圖畫。……由我們現在看來，這種記號引用到文字裏，它們所取的也是圖畫文字的形式，所以依然是圖畫文字的一類，也就是象形文字。我們看見‘一’字，就讀出數目的‘一’，和看見‘虎’字就讀出‘虎’字是一樣的。所以我們無需單爲抽象的象形文字獨立一類。<sup>33)</sup>

라고 하였다. 이는 指事字는 記號로서 抽象的인 사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象形文字이므로 독립적으로 하나의 造字方法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또 林尹은,

32) 甲骨文的 이러한 ‘星’字는 前掲書《殷虛書契前編》卷七 p. 14의 제 1片에 보이는데, 이를 董作賓·屈萬里·龍宇純先生은 ‘星’字라고 봄.

33) 前掲書《中國文字學》p. 70.

所謂指事，就是以符號表示事象的意思。因爲事情沒有具體之形可象，只能用抽象符號表示事情的通象來指明其事。使人看見它可以識得它的事象；觀察它可以發現它的意思。<sup>34)</sup>

라고 하였다. 여기서 林氏는 指事란 符號로서 抽象的인 뜻을 나타내는 造字方法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설명에서는 許慎의 해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는 唐氏와 林氏가 記號 또는 符號가 言語를 대신하는 文字의 造字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記號나 符號가 文字化한 것은 만들어진 文字로 보면 그 文字의 字形·字音·字義와 아무런 연관을 지을 수가 없는 하나의 완전한 강제적인 約定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先秦時代의 사람들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다. 즉 《荀子·正名篇》에,

故知者爲之分別，制名以指實，……名無固宜，約之以命，約定俗成謂之宜，異於約謂之不宜。名無固實，約之以命實，約定俗成謂之實名。<sup>35)</sup>

이라고 하고 있고, 또 《莊子·齊物篇》에는,

以指喻指之非指，不若以非指喻指之非指也；以馬喻馬之非馬，不若以非馬喻馬之非馬也。天地一指也，萬物一馬也。可乎可，不可乎不可。道行之而成，物謂之而然。<sup>36)</sup>

이라고 하였으며, 또 《公孫龍子·指物篇》에는,

物莫非指，而指非指。天下無指，物無可以謂物。<sup>37)</sup>

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引用된 《荀子》·《莊子》·《公孫龍子》에서는

34) 前掲書《文字學概說》p. 87.

35) 楊京注 王先謙集解《荀子集解》新編諸子集成 第二冊 世界書局(臺北, 1974年) p. 276과 p. 279.

36) 新編諸子集成 第三冊《莊子集釋》pp. 33-34.

37) 新編諸子集成 第三冊《公孫龍子》p. 7.



‘指’字로써 事物의 名稱은 모두가 任意的인 約定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지 명칭과 실제와의 사이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치가 개재된 것이 아님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指’字에는 임의적인 約定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漢字가운데 글자의 기본 요소인 字形·字音·字義上으로 아무런 연관을 가지지 않고 완전히 約定으로 만들어진 한 부류의 글자가 바로 指事에 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中國 三國時代의 吳王 孫休가 그의 네 아들의 이름과 字로서 만들어낸 ‘靈(단)·菑(홍)·冀(평)·羿(현)’字와 ‘鉅(망)·鼎(거)·瘡(포)·烝(홍)’字<sup>38)</sup>의 여덟 글자는 字形의 구조나 字音의 규정 그리고 字義上으로 어떠한 연관도 찾아낼 수 없는 완전히 임의적인 約定에 불과한 指事字이다. 그리고 ‘五·六·七·八·九·十’ 등의 글자도 순수한 約定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記號나 符號에 버금가는 指事字이다. 許慎이 指事의 例로 든 ‘上·下’ 두 글자는 이와 같은 定義에 따라 指事에 귀속시킬 수 없게 된다.

### 3. 會 意




許慎의 會意에 대한 定義는 前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전혀 문제점이 없다. 다만 許慎의 指事에 대한 定義가 매우 애매모호하며 이 會意와의 구분이 어려웠을 뿐이다. 이제 指事란 문자의 구성 요소인 字形·字音·字義와는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순수한 約定으로 이루어지는 文字의 造字方法임이 밝혀졌으므로 指事와 會意의 구별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여기서 指事와의 구분을 위해 다시 한 번 會意를 해석한다면, 會意란 造字의 主眼點을 순수히 字義에 두고 만든 것으로, 상관되는 문자나 點·선등을 결합 또는 변화시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會意字는 다음의 몇 가지로 다시

38) 晉·陳壽著 宋·裴松之注《三國志》卷四十八 鼎文書局(臺北, 1977年) pp. 1160-61에서 裴氏는 注에서 이를《吳錄》에서 인용.

나눌 수 있다.

(1) 文字를 이루지 못하는 선이나 점으로 이루어진 것. 예를 들면 ‘上·下’ 등의 글자이다. 이는 몇 개의 선을 합쳐 만든 것이다.

(2)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에 점이나 선을 덧붙이거나 빼거나 또는 약간 변형시킨 것. 예를 들면 ‘木’字의 아래 위에 횡선을 덧붙인 ‘本·末’ 등의 글자와, ‘大’字와 ‘刀’字에 짐을 덧붙인 ‘亦’字와 ‘刃’字, 그리고 ‘鳥’字에서 눈(目)에 해당되는 점을 없애어 만든 ‘烏’字와, ‘子’字의 좌우 어깨를 없애어 만든 ‘孑(혈)’字와 ‘孑(꺾)’字, 그리고 ‘大(손)’字의 머리 부분을 기울게 하거나 다리를 구부려 그 뜻을 나타내게 한 ‘夊(척)’字와 ‘尢(왕:손)’字, ‘永(永)’字와 ‘正(正)’字를 반대로 돌려 만든 ‘依(비:의)’字와 ‘乏(乏)’字, ‘之(之)’字와 ‘首(首)’字를 거꾸로 뒤집어 만든 ‘冫(잠:하)’字와 ‘凵(효:효)’字 등이다.

(3) 어떤 일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자를 덧붙여 만든 것. 예를 들면 甲骨文의  (飲)’字<sup>39)</sup>와 金文의  (張)’字<sup>40)</sup>, 小篆의  (春)’字<sup>41)</sup> 등이다.

(4)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자를 서로 합쳐서 새로운 의미의 글자를 만든 것. 예를 들면 ‘武(止+戈)·信(人+言)·老(人+毛+匕)·歸(帚+止+自)’ 등이다.

#### 4. 形 聲

形聲에 대한 許慎의 定義는 앞 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금도 瑕疵가 없다. 참고 삼아 다시 한 번 설명하면, 形聲이란 이미 만들어진 두 개의 글자가 완전히 동등한 자격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義符가 되고 하나는 발음을 나타내는 聲符가 되는 造字方法을 말한다. 예를 들면 ‘江·河·議·論’ 등의 글자

39) 羅振玉《殷虛書契菁華》p.4. 제 1片에 보임.

40) 容希白編《金文編》大通書局(臺北, 1971年) p.169.

41) 許慎《說文解字》

이다.

## 5. 轉 注

앞 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許慎이 ‘同部互訓’으로 轉注를 定義한 것은 근본적으로 漢字의 造字方法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許慎과 「六書」說에 대한 연원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許慎보다 時代적으로 앞선 班固가 許慎이 말한 形聲에 해당되는 造字方法의 명칭을 ‘諧聲’이라고 한 것에 注意하여 南宋 時代의 文字學의 大家인 鄭樵는 이 轉注를 形聲과 함께 論하고 있다. 鄭樵는 그의 《六書略》에서,

諧聲·轉注一也, 諧聲別出爲轉注.<sup>42)</sup>

라고 하였는데, 이는 轉注란 形聲에서 따로 떨어져나온 造字方法이라는 말이다. 鄭樵는 이를 다시 進一步하여 설명하기를,

諧聲·轉注一也. 役它爲諧聲, 役己爲轉注. 轉注也者, 正其大而轉其小, 正其正而轉其偏者也.<sup>43)</sup>

라고 하였다. 이 말이 難澀하여 어려우므로 趙宦光이 이를 해석하길,

它者, 聲也; 己者, 義也. 蓋諧聲與轉注皆必合彼此兩體爲字: 役它者, 從彼字之聲而用此字之義; 役己者, 通此字之義, 以合彼字之聲.<sup>44)</sup>

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鄭樵의 이 말은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점은 形聲과 轉注가 꼭 같은데, 의미를 나타내는 義符가 주가 되고 거기에 발음을 나타내는 聲符를 덧붙이는 것은 諧聲 즉 形聲이며; 聲符가 주가 되고 거기에 義符를 덧붙이는 것은 轉注라는 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鄭樵가 ‘正其大而轉其小, 正其正而

42) 鄭樵《六書略》券一 藝文印書館(臺北, 1976年) p. 4. 下.

43) 上揭書 卷二 p. 19. 下.

44) 趙宦光《六書長箋》. 이는 施人豪《鄭樵文字說之商榷》 文津出版社(臺北, 1974年) p. 157에서 인용.

轉其偏'이라고 한 것은 字義上으로 形聲과 轉注를 구별한 말인데, '正'과 '大'란 字義가 보편적이고 넓고 큰 것을 말하는데, 이는 形聲字에 해당되며; '小'와 '偏'은 字義가 비교적 작고 좁은 전문적인 의미를 지칭한 것으로 이는 轉注字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鄭樵의 轉注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비록 文字의 造字方法을 論함에 있어 言語와 文字의 상관 관계를 철저히 고려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鄭氏가 지금으로부터 약 일천여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임을 생각하면 그의 이러한 견해는 정말 대단한 卓見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鄭樵의 이러한 견해에서 출발하여 轉注란 어떠한 漢字의 造字方法인지를 알아 보자. 政治·文化·社會·科學등 各 方面의 발전과 변화로 因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말과 글자를 만들어내어야 하는데, 이 때에 이 새로운 말에 해당되는 文字를 만들에 있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를 그 文字의 聲符로 삼고 이에 義符만 덧붙여 새로운 文字를 만들어 專用하게 하는 방법이 곧 轉注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轉注字는 文字의 構造上으로만 본다면 形聲字와 마찬가지로 聲符와 義符로 구성되어 있어 形聲字와 轉注字와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轉注字는 그 造字과정의 원래는 聲符에 해당되는 글자만 있었는데 서로를 구분할 필요성에 의하여 義符에 해당되는 글자를 덧붙여 만들었으므로 두 단계를 거친 것이고, 形聲字는 그 글자가 만들어질 때부터 동일한 자격과 조건으로 聲符와 義符를 합쳐서 만든 것이므로 造字過程의 한 단계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轉注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派生語에서 비롯된 것으로 字義上의 引申義로부터 專用化한 것이다. 예를 들면, 원래는 말(馬)의 번식이 盛하건 불이 盛하건 '盛大하다'는 의미로는 '阜'字가 사용되었는데<sup>45)</sup> 後代에 '말(馬)의 번식이 盛하다'는 의미의 '驄'字와 '불

45) 十三經注疏本《詩經》藝文印書館(臺北, 1974年) p. 164 <大叔于田>에 "火烈具阜"라 하였고, 同書 p. 234 <駟驥>에는 "駟驥孔阜"라고 하였으며, 同一한 十三經注疏本《左傳》襄公 26年 p. 638에는 "韓氏其昌阜於晉乎?"라고 함.

이 盛하다'는 의미의 '焯'字가 만들어져<sup>46)</sup> 專用되었으므로 이 '騶·焯'字는 轉注字이다. 그리고 '右'字에 대한 '佑·祐'字, '文·武'字에 대한 '玟·珷'字, '取'字에 대한 '娶'字 등등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文字의 假借에서 비롯된 것으로 本義와의 구별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원래 '灌祭(제사의 일종)'와 '여자 侍從'이란 의미로 '果'字를 假借하여 썼는데<sup>47)</sup>, '果'字의 本義와의 구별을 위하여 '裸'字와 '嫫'字를 만들어 專用트록 하였으므로<sup>48)</sup> 이 '裸·嫫'字는 轉注字이다. '石'字에 대한 '柘'字도 이와 같은 경우의 轉注字이다.

## 6. 假借

許慎의 假借에 대한 定義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例로 든 글자가 그 자신의 定義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이미 앞 章에서 언급하였으나, 許慎의 假借에 대한 定義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면, 假借란 어떤 말에 대한 글자가 없는데도, 이 말에 대한 글자를 새로이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 가운데서 의미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골라 兼用시키는 방법이 假借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定義에 부합되는 例는 '其·而·苟·且·無' 등의 글자이다. 외나하면 '其'字는 본래 '삼태기'란 뜻인데 지시대명사로 쓰이며, '而'字는 본래 '구렛나루 수염'이란 뜻이나 접속사나 語辭로 쓰이며, '苟'字는 본래 草名이었으나 지금은 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부사나 형용사로 쓰이며, '且'字는 본래 祭器의 일종이었으나 지금은 이와 전혀 상관없이 접속사나 부사로 쓰이며, '無'字는 본래 '춤(舞)'이란 뜻이었으

46) 두 글자 모두 陳彭年等重修《廣韻》藝文印書館(臺北, 1976年) p. 323에 보임.

47) 朱熹《四書集註》《孟子·盡心下》學海出版社(臺北, 1984年) p. 402에 “二女果”라 하였으며, 前掲書《周禮》〈春官〉 p. 291에는 “辨六彝之名物, 以待果將”이라 하였다.

48) 前掲書《說文解字注》 p. 6과 p. 625에 보임.

나 지금은 ‘없다’라는 否定詞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 五. 結 言

以上으로 간략하게 「六書」란 말의 由來와, 從來의 「六書」해설에 대한 문제점을 살핀 다음, 나름대로의 「六書」에 대한 새로운 해설을 시도하여 보았다. 이런 가운데 《周禮·地官》中の 「六書」란 구체적으로 어떤 여섯 가지의 字體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劉歆의 「六書」說은 어디에서 어떻게 유래된 것인지를 두 문제가 아직 未解決의 것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從來의 「六書」說에 대한 문제점의 검토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의 의견이 各樣各色이어서 이들을 하나 하나 상세히 다져보지는 못하였으나 대체적인 문제점은 거의 지적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六書」에 대한 새로운 해설에서는 立論의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中國의 言語와 文字와의 관계로써 완벽하게 파악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言語와 文字와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未解決의 문제점과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論文을 끝 맺고자 하는 바이다.

## 摘 要

東漢·許慎以來, 研究中國文字學的人都討論漢字的造字法「六書」。但是到現在為止「六書」의 界限還沒分得清楚。大體來講, 其原因有二。第一, 當初創造漢字的時候, 不是先有造字原則而後造字的緣故。第二, 許慎以後討論「六書」의 學者們, 大部分都以許慎의 「六書」說爲金科玉條의 緣故。因此, 本論文研討「六書」, 先探討「六書」這一名稱의 意義和由來, 然後檢討過去의 「六書」說有什麼問題 最後試圖定下新的「六書」定義。得到的結果如下。

一. 「六書」這一名稱，最初出現的《周禮·地官》中的意義，是指六種書體而言的。

二. 「六書」說的由來，始於西漢末年的劉歆。

三. 過去「六書」說有如下的問題。

1. 指事的定義，和象形·會意的界限分不清楚。
2. 爲了解決這一問題而提出的「獨體·合體」說，也是有問題的。
3. 轉注和假借也應該看做造字方法。
4. 假借的例子，不附合於其定義。

四. 「六書」的新定義如下。

1. 象形：描寫具體實物之形而造字，如‘日·月·山·川’等字。
2. 指事：與文字之形音義毫無道理可說明，只有強硬約定俗成之字，如‘五·六·七·八’等字。
3. 會意：用點或線或已有的文字來互相配合或變形而另造新字的，如‘上·下·武·信’等字。
4. 形聲：其結構有義符和聲符兩個部分，但是以義符爲主體，如‘江·河·松·柏’等字。
5. 轉注：外表和形聲相同，但是以聲符爲主體，如‘祐·娶·裸·燃’等字。
6. 假借：本來有語言而無其字，因此取字義毫無關係而音相同或相近之字來兼其義之法，如‘其·無·苟·且’等字。